

꽃이 지고 나면
눈물이 난다



김선희 시집

꽃이 지고 나면 눈물이 난다

김선희

꽃이 지고 나면 눈물이 난다

출간일 2017년 4월 4일

지은이 김 선 희

출판사 도서출판 숨쉬는 행복

ISBN 979-11-88233-29-8

판매가 8000원

주 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902동 616호(하계동)

blog.naver.com/2051426

© 김선희 2017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08391)

차례

햇살에게	8
민들레 밭.....	9
이별.....	10
마음이 저문 후에	11
마음의 구름	12
한 사람의 인형이 되다	13
장미의 눈물	14
마음이 떠나던 날	15
무의미한 만남.....	16
관계의 회복을 잃으며	17
나그네의 봄바람	18
마음이 이별	19
보내야 하는 마음	20
마음이 흔들릴 때	21
꺼져가는 등불	22
이미 다 잃어버린 마음	23
사랑 후에 오는 것들.....	24
꿈	25
비어라 비어라 마음이어	26

마음이 떠났습니다.....	27
어린 가지 하나 가져다가.....	27
내가 살아가는 이유.....	28
상처.....	29
순수한 마음.....	30
눈물방울이 별이 되어.....	31
쓸쓸한 바다.....	32
홀로 가는 세상엔.....	33
홍폐폐의 말.....	34
현대사회.....	35
다 보내리라.....	36
거짓의 말.....	37
식어 버린 영혼처럼.....	38
스승의 날.....	39
화초에게.....	40
기도 끝에.....	41
단힌 마음.....	42
멈춰버린 나.....	43
자유.....	44
죽음을 향하여.....	45
가시 돋친 장미.....	46
핸드폰.....	47

편지.....	48
슬픈 인생.....	49
물살을 가르며.....	50
비밀.....	51
만남 후에.....	52
된장.....	53
사랑을 익힐 수 있다면.....	54
봄의 절망.....	55
그리운 후회.....	56
아픈 가지.....	57
나의 인생.....	58
큐피트의 화살.....	59
쓰나미.....	60
우정.....	61
안개.....	62
외사랑.....	63
폭우.....	64
무한한 마음.....	65
욕망 속에서.....	66
이른 아침.....	67
고요한 산책 중에서.....	68
어른으로 산다는 것.....	69

축복.....	70
바쁜 일상 속에 한 순간의 만남은	70
홀로 추는 춤	71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71
지옥.....	72
기다림	73
닫혀진 창.....	74
한마디 말.....	75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	76
봄이 오면.....	77
행복의 쓴 잔.....	78
자원 봉사.....	79
오늘 하루.....	80
작가 소개.....	81

햇살에게

내 마음에 고여 있는 아픔의 호수
두 눈 감고 바라보니
천지가 깜깜하구나

언제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지
깜깜함이 햇살을 그리워하는구나

창 틈 사이로 스며드는 조용한 이름이여
그대 이름은 햇살인데
나는 언제쯤 네게 다가가
너의 품에서 쉬게 되리
한숨 한번 쉬어본다

민들레 밭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마음은 고독 속에서 헤매는구나
빈허 같은 들에서
홀로 떠도는 민들레처럼
홀로 예쁘게
밝음을 밝혀 보지만
세상은 너무 어두워
알아봐 주는 이가 없구나

언젠가 나그네 찾아와
민들레 꽃씨를 입술에 묻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때는 천지가
민들레 밭이 되리라

이별

마음이 산란하다
힘겨움이 마음을 억누르고
머리는 돌맹이 하나 들어가 있듯
무겁다

마음의 슬픔이 이보다 크리
고개 숙여 가린 눈물 자국에
자신을 속여 보지만
가릴 수 없는 마음은
지울 수 없는 만남을 한탄하며
슬피 운다

마음이 저문 후에

붉은 딱정벌레의 날개 짓에서
꿈의 풍요를 그린다
지칠 때까지 소리 없이 흔드는
작은 몸에서
인내를 배운다
참고 기다리고 잊어버리면
그리움 속에서 작은 날개 짓이
다시 살아 날것이다
그때까지 안녕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리

마음의 구름

살 수 있어 사는 것이 아니다
울고 싶어 우는 것이 아니다
눈물 속에 웃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듯
마음의 흔들림은
다양한 모양의 구름을 만든다
그리고 조용히 흘러간다

한 사람의 인형이 되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사람
시간이 흐른 후
그 한 사람이 떠나니
수많은 말들이
의미 없는 소리로
긁가로 맴도는데
내 마음은 한 사람의 인형이 되어
멈춰버렸다

장미의 눈물

닫혀 버린 마음을
열어 보려 하다가
나도 닫혀 버린 마음
누군가를 위해 다시
열어 보일 수 없는
상처 받은 장미는
붉은 피를 뚝뚝 흘린다

마음이 떠나던 날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며
시간을 보내련다

잊히겠지
잊히겠지
마음을 다지며
세월을 보내련다

무의미한 만남

다정하던 시선은 사라지고
몸뚱이만 남은 옆자리
무의미한 눈빛 속에
저물어 드는 마음

잠깐 긴장했던 가슴이
숨을 몰아 쐬다

마음이 사라져간
의미 없는 만남

관계의 회복을 잃으며

호흡 속에 미소 지으며
노력하는 관계의 회복을
희롱하는 바다

출렁거리다 회오리 치는
소금기둥들이
거대한 산이 되어
나를 무너뜨린다

다을 수 없는 손끝으로
잡으려 해보았지만
이미 막혀버린 마음
어찌 되돌릴 수 있는가
슬픔의 기둥은 말이 없었다

나그네의 봄바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슬을 밟으며
기다리던 날
잊혀진 얼굴에 유리알을 그리며
만나던 사람
속마음 들킬까
어설피픈 마음으로 웃던 그림자
거리의 군중 속으로
밝게 숨 몰아 쉬는 햇살 위에
멈춰버린 구름
나그네처럼 사라져 가는
바람이었다

마음이 이별

차갑게 머무른 눈동자
오랜 시간의 그리움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시간이 흐른 만큼
정이든 마음에
기름처럼 타오르던 열정
붉은 해 저무는 노을처럼
사라져 가는 마음

보내야 하는 마음

고요히 잠들었던 마음의 숲에
열정이 고개 들고
눈웃음이 그리움으로 잠들어
이별이 마음을 친다

시간이 흐르고 추억 속에 남을
작은 시간들이
가끔은 잔 웃음을 남기고
가끔은 눈물을 남기겠지

지금은 보내야 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약속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벚꽃 휘날리는 봄날
낮선 시선에 가슴 조이며
조용히 다가선 마음
물속에서 키워온 작은 물방울이 터져
빗물을 만들 듯
어느덧 마음의 고향에
뜻 없는 기쁨이 샘물을 만들어
조용히 졸졸거렸다

꺼져가는 등불

천천히 시작한 봄날
벚꽃 잎이 아스팔트를 덮을 때
다정한 말장난으로
정든 마음

햇살처럼 말을 걸 듯
마음을 밝히던 등불
조용히 꺼져 가는
기름 없는 촛대로 남는다

이미 다 잃어버린 마음

이미 다 잃어버린 마음

무심한 등불

작은 꽃잎으로 흔들어 보지만

꽃잎은 떨어지고

눈물이 망막을 넘어

눈부신 햇살을 바라본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고요한 밤이 수없이 흐른 후
다시 들리는 그리운 목소리
아픔이 고개를 쳐들 듯
다시 살아나는 폭풍들
휘몰아치며 다가와
깨져버린 메아리처럼
심장이 놀라
눈물이 쏟아내는 폭포수
모든 것이 아픔이더라

꿈

지난 꿈에 매달려 사는 것이
거지같은 존재로 사는 것 같아
현실을 잃은 듯하다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
꿈꾸는 것이 답답하다
모든 것을 놓아 버림으로
빈 나무가 되어 버리고 싶어
내 몸의 나뭇잎을 다 버려 보지만
욕망으로 꿈꾸는 지난 꿈은
삭으려 들지 않는다

비어라 비어라 마음이어

비어라 비어라 마음이어

담아 놓은

가뒤틀린 욕심 내몰아

빛속으로 던져버려라

빈 마음으로

쫓아지는 빗물을 받아

배고픔을 채워라

비어라 비어라 마음이어

마음이 떠났습니다

어린 가지 하나 가져다가
작은 화분에 심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물도 주고 기쁨도 주고
아픔도 주었습니다

튼튼히 자라난 가지는
겨울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인생이 나에게 술 한잔을
따라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술잔을
슬픔의 술잔을
마주 건네며 마음을 열어줄
그때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상처

작은 상처 하나로
온몸이 아픈 것을
마음의 슬픔은
어떻게 치유 할 것인지
살아 있는 미물들에게
묻고 싶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가로수 되어
아스팔트를 휘감고 돈다
참으로 오랫동안
숨겨진 마음이
구름 따라 다가오듯
내 마음을 열개하였다
물살 위에 휘저어가는
달 그림자처럼
맑은 사람이 다가 온다
아무 말 없는 입술에
조그마한 기대를 품는 마음은
그 자체로 순수한 들꽃이 되어
가슴속에 피울 오른다

눈물방울이 별이 되어

고요한 방안에
지저귀는 새들이
날마다 내게 찾아와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선사하지만
마음의 끝은
기쁨의 파도가 몰려와
인내의 창으로
미래를 바라보라고
눈물을 흘린다
작은 방울들이
방안의 별이 되어
곱게 비추인다

쓸쓸한 바다

사람은 많으나
마음 둘 사람은 없구나

쓸쓸한 바다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
파도가 몰아오는 물방울에
눈물이 고이는구나

홀로 산다는 것이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사람을 아는 고통이 되어가는 듯
적막한 소리로
모래사장을 뒤덮는구나

홀로 가는 세상엔

사람도 없다

아이도 없다

동행이 부서져 내린다

아프다 현대의 가슴이

이제는

가족마저 부서져 내린다

홍폐폐의 말

작은 잎 술이 말을 걸어온다
따뜻한 햇살과
맑은 물에
목이 메이듯
한여름의 더위에 허덕이다
나에게 말을 걸었다
외로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너를 몰아 세워도
아픔의 지옥과
허무를 선사한다 하여도
맑은 마음으로 사르라고
작은 잎들이 위로를 전한다

현대사회

죽어가는 목숨이 숨을 몰아 쉰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마른 나무처럼 달려가는
죽음의 길 위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무심함으로 두 눈이 멀었다
마지막 숨을 몰아 쉬다
눈을 감았다

다 보내리라

다 보내리라

인생에서 만난 인연들

홀로 살며

눈물 흘린 날이 많아져도

다 보내리라

인연의 끈이 내게 준

아픔을 그림으로

홀로 그리며

흐린 날이 찾아와도

다 보내리라

거짓의 말

마음속의 말들이 울음을 토할 때
입으로 나오는 말은
작은 사랑에 대한
지킴의 말 이었다

다른 이를 바라보는 이를 향하여
마음속의 말들은
소리 없이 내게 오라 부르짖지만
입의 말은
작은 사랑을 지켜주라는
축복의 말 이었다

식어 버린 영혼처럼

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지
하늘은 너무 푸르게 웃고 있었지
연 푸른 나뭇잎들은
나뭇가지에서 축복 송을 부르며
기도를 해 주었지
그러나
사랑은 식어가고 있었어
식어버린 영혼처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속에 숨은 감사의 마음
꿀 수 있어 행복한 마음
베풀 수 있어 다정해지는 마음
꽃 속에 조용히 웃음 머금은
받는 마음
모두가 행복이었어라

화초에게

가꾸며 사랑하며 키워 온
작은 화초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며
홀로 잠든 맘
꿈속에 그리운 이 찾아와
안아주는 다정한
옆 속에 숨어 현실이 되기를
가꾸며 사랑하며
키워 본다

기도 끝에

만남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는 마음
헤어지는 버림을 안 그날
기도는 멈춰 버렸다

하늘도 무심히 바라본 메아리를
이젠 침묵 속에
조용히 외친다
하늘의 뜻대로 놓아 주라고

단한 마음

조용한 섬 하나
홀로 떠 있는 바다
그 속으로 나 들어가
혼자만의 감옥으로 들어간다

다시 나오지 않으리
섬 밖으로
달려진 바다

멈춰버린 나

만남이 행복했던 날
알아가는 것이 행복했던 날들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때

만남도 허망이 되고
셀 수 없는 앓들이
별 뿌리 흩어져 버린다

멈춰 버린 나

자유

결혼의 사슴에
나를 묶지 않으리

가족이라는 사슴에
나를 죽이지 않으리

나만의 끈을 신들에게 묶고
끝없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 가리
죽음이 나를 기다릴 때까지

죽음을 향하여

가벼운 마음을 무거움에 실어
자신을 가꾸어 가다 보면
꿈의 산에 도달하겠지

작은 잎새가
어른이 되어 가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날
나는 죽음의 바다에
홀로 누워 있겠지

가시 돋친 장미

아기 같은 순수함에 반하여
마음을 전해보지만
날아오는 돌멩이에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젊음의 성실함에 반하여
마음을 열어보지만
가시 돋친 장미 줄기처럼
무섭게 찌르는 가시는
심장을 뚫어
피눈물을 흐르게 한다

핸드폰

그리움에 가끔은 손을 내밀어 보지만
묵묵한 침묵을 지키는 핸드폰
옛정의 다정함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 우주로 사라지고
잠시 바라 본 그리움을
밀어내 버린다
울리지 않는 핸드폰 속으로

편지

우체통 앞에 홀로 서서
받아 보려는 사랑 하나
붉은 입 속으로
다시 넣어 버린다

슬픈 인생

꽃은 떨어져도 잎은 남아
추억을 지키지만
사람은 한번 떠나면
다시 잎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늘 슬픈 인생

물살을 가르며

물살을 힘차게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물살이 나를 따라와
함께 하자고 한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쏟으며
인내하다 보면
언젠간
함께 할 동행이 된다

비밀

마음속이 비어 버렸다
생각이 사라지고
숨김이 사라져 가니
삶이 빈들이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눈에는
눈물만이 흐른다

만남 후에

바라보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레임은
만남 후에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무지개가 사라지듯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서로의 마음에 따라서

된장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인생의 깊은 맛을
삶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한 숟가락의 된장찌개
그 속에 깊은 맛을 내는
된장이고 싶다

사랑을 익힐 수 있다면

사랑을 익힐 수 있다면
열정을 알 텐데
비밀 정원에서
나눌 수 있는 꿈을 꾸면
어느 만남이든
행복으로 남을 텐데

봄의 절망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정조차 만들 수 없는 만남 후에
믿음이 깨지는 순간

나는 모두 절망 이었네
꽃이 피기도 전에 저버린 봄날

그리운 후회

젊은 날 선택의 기회에
선택하지 않았던 꽃 한 송이가
흙빛 속에서 자라날 때
나는 후회를 알았다
되돌아 갈 수 없는 한 송이
꽃이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후회를 그리워했다

아픈 가시

홀로 뺀 가시에
가시를 매달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심어 보지만
헛된 마음이라
스스로 제 몸에서 가시를 뽑아 내는 아픔을
홀로 겪는 인생이
이 시대에 남아 있을까
무덤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의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꿈을 꾸는 즐거움은
나만의 인생

어둠이 천지를 가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은
나만의 인생

사랑이 절망을 품어도
또 다른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인생

큐피트의 화살

붓끝으로 그려지는 난초자락에
목향을 품으며
마음을 펼치는 작은 눈망을
분홍빛 꽃잎 다섯 장을
심어 놓는다
누군가의 심장 속으로

쓰나미

물이 좋아 물로 갔다
물을 닮은 사람들이
물이 되어 바다로 간다
소금처럼 짠 기둥이
소돔에게서 떠나
인간세계로 왔다
허물어지는 도시의 밤은
물벼락을 맞고
쏟어져 간다

우정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이
그립습니다
욕심으로 갇힌 발에서
키워낸 열매들이
잔 물이 되어
시멘트로 자리매김한 도시
삭막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이
그립습니다

안개

외치고 사라져 버린

얼굴 없는 사슴들

여린 눈망울이 눈물을 머금은 날

온 세상은

투명하게 흐려졌다

외사랑

홀로 바라보는 꽃은
늘 외롭다
기쁨이 와도
슬퍼지고
슬픔 속에서도
화사함을 잃어가는
외로운 아픔이다

폭우

쓰리도록 아픈 마음에
또 다른 폭우가 쏟아졌다
시리고 멍들은 몸뚱이는
산산 조각이 나고
남겨진 조각까지도
짓밟혀진 핏줄에
폭우는 핏물이 되어 흐른다

무한한 마음

무한함을 아는 마음도 있었기에
감사했던 한 순간이
운명의 사슬을 달고
죽음을 맞이했다

가끔은 한 순간의 무한함을
마음으로 새겨보며
현재의 가벼운 마음을
위로해 본다

욕망 속에서

하룻밤의 욕망에
등 돌린 무리들
한 번의 실수에 지나쳐간 현실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고
목말라 지친 입술에
타는 욕신 마저
뭉개 버렸다
자신의 욕망들 속에서

이른 아침

창가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
관심의 무리에 이별을 고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져 보지만
알 수 없는 마음 밑바닥에
말라 버린 눈물자국이
찬 공기를 감싸 안는다
다시 일어나 일어나
한발자국씩 내디디라고
다시 일어나 일어나
다른 이에게 보낸 심장이
뛰게 하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창가의
날카로운 미소

고요한 산책 중에서

고통을 끌어 안으며 살아가지만
미움으로 이겨 내려 하지 말아라
받은 마음이 상처였든
주는 마음이 고의였든
흘려버린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서글퍼지는 인생에
흐르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른으로 산다는 것

외로워할 시간 없이
지치게 하루를 살아보라고
생각할 시간 없이
순간을 느껴 보라고
어느덧 나는
세월을 삶으로 묶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축복

바쁜 일상 속에 한 순간의 만남은

달콤한 축복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향을 따라

가던 길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축복입니다

축복이 삶이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홀로 추는 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바라보던 이
바위틈에 피어난 제비꽃처럼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올 시간을 위해
나 오늘도 홀로 춤추고 있다

지옥

다른 이를 향한 몸뚱이의 놀림에서
빈 허를 알았고
흐르던 강물의 상심을 느끼며
흐느껴 울던 밤
소리 없는 자장가에
눈을 감아 보지만
잠 속에서 빠져 나오기는
너무나 빨라
이것도 지옥이었구나
외쳐보았다

기다림

일상의 대화를 하며
함께할 시간을 꿈꾸는 속마음
기다리기에 지쳐
잠시 마음을 돌리지만
이미 떠난 화살은
나의 눈을 멀게 하여
기다리는 열정에 빠져
뒤를 돌아보지 못한다네

닫혀진 창

닫혀진 창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는 마음
행복을 빌려주는 기도였나
원망하는 마음이었나
아픔이 아픔을 잉태하던 날
눈물은 말없는 침묵을 깨고
찾아 왔지만
닫혀진 창은 열릴 줄 모른다네

한마디 말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에 빠져

홀로 기분 좋은 날

한마디 말에

피곤함이 사라지던 날

짧은 행복이 눈가의 미소를 찾아낸다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에
지친 육신을 일으켜 세워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덜 고단 할 것을
인생이라는 술잔에
한 잔의 술을 따라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덜 외로울 것을

봄이 오면

찢어진 몸이 아픔을 호소하지만
마음의 멧힌 핏망울만은 못하는구나
봄이 다가오면
아물어 버린 몸의 아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마음의 멧 자국은
시퍼런 잎이 되어
피어나는구나

행복의 쓴 잔

언젠가 찾아온 행복한 순간 위에
오늘의 쓴 잔이 건배를 한다
소리쳐 외치고
가슴 조이는
긴장하던 순간들을 풀어 헤치며
술잔에 마음을 기울여 본다
녹아 내린 마음에
행복의 잔을 다시 채우며
스스로의 목 줄기에
시원함을 토로해 본다

자원 봉사

장애가 많은 현대인들에게서
몸의 불편함보다
얕은 마음의 장애를
안쓰러워 해야 할 봉사자가
운명처럼 내게 다가온다

오늘 하루

동행이라는 길 위에
몽롱의 시간을 보내며
홀로 행복해 할 시간
길가에 피어난 작은 야생화처럼
여리게 자라난
지나가는 행인의 동행이 되어 주듯
다가올 꿈의 시간에
입맞춤을 하며
잠에서 깬다

작가 소개

국문학과를 다니면서 작가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았으며, 작가란 참 힘겨운 예술가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작가의 꿈을 접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레 글속에 머물게 되었고 늘 글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습작 후에 2006년 순수문학지에서 시로 등단하게 되었고, 2008년 도서출판 글벗에서 반딧불 시집을 출간하였고 2011년 계룡문학상 시조부문 본 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 마음세상에서 꽃이 지고 나면 눈물이 난다, 순수, 빨강우체통, 생의 침묵, 2013년 사랑한다면 기다려라, 마음이 흐르는 강, 2014년 낙엽에도 가시가 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느린 것이다, 외다수, 2015년 말없이 바라보는 그대의 손, 그냥 흐르는데로 가는 것이다, 외 다수, 2016년 개미의 샘,희망촌에도 봄은 왔다, 수필집과 안개속에 숨은 어린가지등 다수의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진솔한 삶을 살아왔고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많은 글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글들을 올리고 있으며 서로 간에 즐거운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의 산을 오르다 보면 많은 꽃들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삶을 느끼게 해 주는 작은 꽃들 속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기도 하고 꽃이 진 자리에 머무는 슬픔을 느껴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이 많은 꽃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흔드는 어떤 사람이 꽃이 되어 찾아 온다면 그것이 나만의 외사랑이든 서로간의 사랑이든 마음에서는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 행복해지고 많이 슬퍼지기도 하면서 꿈꾸어 온 함께하는 순간을 늘 그리며 지내지만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 가지는 않는 듯 합니다.

한 사람이 큰 마음으로 가슴에 와 있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 꽃이 지는 자리에 눈물이 맺히는 슬픔도 내 몫이라는 생각에 작은 글들을 모아 보았습니다.